

한국대학원에 재학하는 중국 유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1)

A Study on Filial piety Consciousness of Chinese Students
who attend Korea Graduate School

박미숙 (인하대학교)*

이미정 (인하대학교)**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중국유학생과 효 의식
 - 2. 효의 내용
 - 3. 효 의식 선행연구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1. 공경의 효
 - 2. 친애의 효
 - 3. 봉양의 효
 - 4. 입신행도의 효
- V. 결론

1)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임
(No. NRF-2013R1A2A2A04013571)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 박사과정 수료

** 공동저자 인하대학교 BK21+ 연구교수

〈요 약〉

국제화로 인해 한국의 대학원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중국 유학생들은 모든 유학생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유교사상과 효 문화가 생활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에서 효에 대한 의미와 의식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의 효 의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 7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5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가 분류한 효의 내용을 근거로 공경의 효, 친애의 효, 봉양의 효, 입신행도의 효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경의 효에 대해서는 중국출신 대학원생들은 부모에게 공경함과 존중함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친애의 효에서는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으며 부모와 소통을 위해 화상전화와 메신저와 메일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가 주는 사랑만큼 자신은 자녀에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셋째, 봉양의 효에는 부모가 늙거나 병환중일 때 부모를 자신이 모실 것이라고 하였다. 요즘 한국에서 부모님을 노인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넷째, 입신행도의 효에서는 빨리 학위를 받아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고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명예를 잘 지키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원생들의 효심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유학생들의 효 의식을 이해하고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제어: 효 의식, 중국유학생, 대학원생

I. 서 론

세계는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학원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며, 또 세계에 대한 문화적 체험을 위하여,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학력 자분을 획득하기 위해 유학을 선택 한다²⁾. 전체 한국유학생 84,891명 중 한국에는 대학원 석·박사과정 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7,3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중국출신 유학생이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³⁾ 이렇게 중국유학생이 많은 이유는 중국의 많은 인구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이 인접되어 있고 동아시아권의 사상이 비슷하여 중국과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음식문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한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원에도 중국출신 유학생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효경에 의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오랫동안 효는 인간의 가치기준의 근거이며 인간관계의 근원인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덕목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혼종 되어도 효에 대한 기본 가치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한자녀 정책 시행에 따라 중국의 가족구조는 '4-2-1' 구조, 즉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 그리고 1명의 자녀 구조로 변화하였고, 외동자녀가 중국가족 형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⁴⁾ 이러한 정책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과잉보호로 이어졌고 자녀들은 당연시하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났다. 이러한 세대인 외국인유학생들의 효 의식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유학생들의 효 의식은 한국의 유학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효와 유교사상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때 중국의 중화민족사상으로 변화하면서 현대의 중국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효 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출신 유학생들의 효 의식은 어떠한지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효의 의미는 무엇이며, 효 의식은 어떠한가? 이다.

2) 김지훈·이민경,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동기와 경험연구」, 『동아연구』 제 61권, (2006), p75.

3) 법무부 통계월보(2015)

4) 유계숙·유행, 「중국 한자녀가정 대학생 자녀의 효의식과 헬리콥터부모역할에 대한 지각」, 『가족과 문화』, 제 26권 1호, (2014), p123.

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중국출신 외국인 대학원생 7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부모를 떠나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의 효 의식을 이해하고 효에 대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유학생과 효 의식

국제화시대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출신의 유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전체유학생의 18.8%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에는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2014년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유학생은 2006년 32,557명에서 계속 증가하다가 2011년 최고인 89,537명으로 나타났다. 그 후 차츰 줄어들어 2014년 84,891명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2014년 총 유학생 84,891명 중 석사과정 생이 15,826명, 박사과정 생이 5,709명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을 유학형태별로 살펴보면 자비유학생, 정부초청장학생, 대학초청장학생, 자국정부과견장학생, 기타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별 유학생 수는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 일본, 몽골, 베트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연 중국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유학생의 빠른 증가는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이다. 한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을 시작으로 2012년 ‘Study Kprea 2020 프로젝트’⁵⁾를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다.⁶⁾ 둘째, 한국 대학의 입학관력 정책이다. 한국의 대학들이 국제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에서 노력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입학자원의 감소이다. 각 대학들은 입학하는 학생

5) GKS(Global Korea Scholarship)사업이라고도 하며 2015년까지 연 1000억원, 2020년 까지 연 2000억원 규모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초청장학생 신규선발 인원도 2015년 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하여 미국의 풀브라이트와 같이 한국대표 장학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6) 박미숙·김영순·홍유나.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외국으로서 한국어교육』. 제 40권(2014), p. 112.

들이 감소하여 유학생의 유치로 대학의 미충원현상을 해소하여 대학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작용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중 중국출신 유학생이 과 반수를 넘게 차지하게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에는 부모와 조부모들이 외동자녀를 구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소황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황제는 항상 부모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며 부모들은 자녀를 인생의 전부로 간주하고 있다. 한자녀정책의 시행에 중국의 가족구조는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 그리고 1명의 자녀 구조로 변화하였고, 외동자녀가 중국가족 형태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학구열은 유학으로 이어졌으며 한국의 경제성장 역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류정려⁷⁾는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과잉보호로 이어졌고,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당연시하여 효와 도덕성에 대하여 재정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효 의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류한근⁸⁾은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부모와 연관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며 관독하고 표현하는 의식의 총체라고 하였다. 현대사회의 효 의식은 전통사회의 효 의식과 다르게 효에 대한 개념과 의식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焦國成과 趙艷霞⁹⁾는 효 의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첫째, 효는 효의 주체가 자녀만이 행하는 효로 정의하였다. 둘째는 효 행동은 자녀가 행하는 효 행동이 좋은 일일 경우에만 효라고 정의한다. 셋째는 자녀가 좋은 행동을 하는 대상자가 부모일 경우에만 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효 의식은 현대의 효 의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김미정¹⁰⁾은 현대의 효 의식이 다섯 가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이해하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생활화된 효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의도적이고 교육적인 태도를 정립하는 것이다. 넷째, 부모의 교육적인 자세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엄한 훈육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시

7) 류정려. 「중국대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2013.

8) 류한근. 「효 의식 조사를 위한 척도연구」. 『효학연구』. 제 13권(2011), p. 116.

9) 焦國成·趙艷霞. 「孝의歷史命運及其原始意蘊」. 『齊魯學刊』, 제 1권(2012), 5-10.

10) 김미정. 「대학생들의 효 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11) p. 14.

대는 타율적이 아닌 자율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효 의미에 대하여 최근덕¹¹⁾은 첫째, 인간의 진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가정의 형태와 기능이 변모되어 갈수록 가족 간의 유대를 끈끈히 다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수 있다. 넷째, 민족공동체의식을 제고하고 민족동질성유지 등 사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역사적 인간으로서 나를 일깨워 줄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효 의식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것이다. 첫째,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가족 간의 소통의 근간이 될 것이다. 셋째, 인간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가족의 중요성을 통해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효 의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효의 내용

효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내용을 분류하였다. 먼저 박철호¹²⁾는 효의 유형을 순종, 대리, 친애, 존속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순종의 효는 부모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관계에서 형성되며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가능하다. 부모의 가르침이 옳다는 신념이 동반할 때 더욱 활성화된다. 둘째, 대리의 효는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는 행위가 부모의 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임을 자녀가 알게 되면서 자녀로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셋째, 친애의 효이다. 친애의 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와 인격적 만남을 촉진하고 대화의 대상으로 변화시킨다. 넷째, 존속의 효는 자녀가 부모의 안정과 건강유지를 위해 부모님과 대화하거나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녀의 노력은 긍정적인 변화를 류한근¹³⁾은 효 의식은 순종, 대리, 친애, 존속, 순종의 흐름으

11) 최근덕. 「효와 미래사회」. 『효학연구』. 제 4권(2007), p 91.

12) 박철호. 『효학의 이론과 실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p.153-170.

13) 류한근. 「효 의식 조사를 위한 척도연구」. 『효학연구』. 제 13권(2011), 105-121.

로 순환한다고 하였다. 일방적인 순환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역순환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류정려¹⁴⁾는 박사논문에서 효의 내용을 생전의 효와 생후의 효 아홉가지로 분류하였다. 생전의 효는 정신적인 효와 물질적인 효로 나누었으며 생전의 정신적인 효는 공경, 순종, 입신행도, 간언, 형제 친척 간 돈목 다섯가지로 나누었으며 물질적인 효는 봉양, 시봉, 보신의 효로 나누었다. 사후의 효는 상·제례의 효로 나누었다.

이종길¹⁵⁾은 전통적인 효 실천내용을 열한가지로 요소로 추출하였다. 열한가지의 요소를 감사의 효, 섬기는 효, 뜻을 헤아리는 효, 정의로운 효, 정직의 효로 나누었으며 이를 각기 생육에 감사하는 효, 신체 보전하는 효, 순종하는 효, 공경하는 효, 봉양하는 효, 후사를 갖는 효, 사후의 효, 양지하는 효, 시봉하는 효, 간쟁하는 효, 입신양명하는 효로 실천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효의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경의 효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 된 자로 당연한 도리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를 섬기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인 의무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예를 다하여 극진히 행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언행을 바르고 예의바르게 함으로서 가정 내 질서를 유지하고 밖으로 웃어른을 섬기는 경로효친의 사상의 실천이 공경의 효라 하겠다¹⁶⁾

둘째, 친애의 효이다. 친애의 효는 부모님과 친밀하고 다정하게 지내는 것으로 친애의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화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님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항상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님과 친애적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항상 소통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과 상호작용은 일방적인 요구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14) 류정려. 「중국대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서대

15) 이종길. 「한국고등학생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10. 이종길은 효의 실천내용을 감사하는 효는 생육의 효, 신체보전의 효로 나누었고 섬기는 효는 순종의 효, 공경하는 효, 봉양의 효, 후사의 효, 사후의 효로 나누었다. 뜻을 헤아리는 효는 양지의 효와 시봉의 효, 간쟁의 효로 나누고 정직의 효는 입신양명의 효로 나누었다.

16) 김재형. 「청소년의 효의식, 효행동의 요인구조탐색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2006.

이루어질 때 친애의 효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봉양의 효이다. 봉양의 효는 부모와 같은 어르신을 봉양하는 효로 물질적인 봉양과 정신적인 봉양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참된 봉양의 효가 이루어진다. 봉양의 효는 자식이 부모가 생활해 가는데 물질적 정신적으로 궁핍함을 느끼지 않도록 의식주 그리고 정신적인 면까지 정성을 다해야 한다.¹⁷⁾

넷째, 입신행도의 효이다. 입신양명의 효는 스스로 학문과 덕을 닦아 사회에 나아가 입신출세하여 집안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문을 빛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¹⁸⁾ 이렇듯 입신하여 세상에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은 본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 더 나아가 조상과 가문에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효도일 것이다. 이름을 드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행실을 바르게 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 결백하게 자신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이 행도라 할 수 있으며 최상의 효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출신 외국인 유학생의 효 의식을 공경의 효, 친애의 효, 봉양의 효, 입신행도의 효로 나누어 이들의 효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효 의식 선행연구

효 의식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효 의식에 대한 대상별 연구가 있다.

먼저 초등학생의 효 의식 연구에는 채경선¹⁹⁾과 이신동²⁰⁾, 최한을²¹⁾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효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효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효 의식을 살펴 보았다. 효의 재정립의 필요성들을 주장하였다.

중·고등학생의 효 의식을 살펴본 연구는 백석원²²⁾, 이숙희 외²³⁾, 이종길²⁴⁾의

17) 김미정. 「대학생들의 효 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11. p 9

18) 채광병. 「태권도 수련 초등학생의 교육프로그램이 효의식에 미치는 영향」(석사논문, 경희대학교, 2008), p59.

19) 채경선. 「초등학생의 효 의식과 효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효학연구』. 제 13권(2011), 123-150.

20) 이신동. 「강화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산대학교 원대학교, 2006.

21) 최한을. 「초등학생의 효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2002.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효를 분류하고 이들의 효 의식을 살펴보고 현대적 효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렇듯 학생들의 대상을 구분하여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학생들의 효를 분류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양적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안나²⁵⁾, 김미정²⁶⁾의 연구와 류정려의 연구가 있다. 특히 류정려²⁷⁾는 중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효 의식을 살펴보았으며 이 역시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중국대학생의 효 의식의 수준을 파악하고 효 의식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정정애·박영숙²⁸⁾은 한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효 의식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 역시 통계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여성보다 결혼이민여성들의 효 의식이 더 높다고 하였다. 류한근²⁹⁾은 효 의식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효 의식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첫째, 효의 내용을 분류하여 그에 맞게 효 의식을 살펴보았다. 둘째, 문헌분석을 하거나 양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실증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셋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하다. 중국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있긴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출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효 의식을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심층인터뷰하고 이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효 의식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2) 백석원. 「고등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03.

23) 이숙희·신효식·이선정. 「중학생의 효 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 17권 2호(2005), 159-170.

24) 이종길. 「한국고등학생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10

25) 최안나. 「개념도 방법을 통한 여자대학생이 인식하는 효 의식」. 『효학연구』. 제 12권(2010), 35-53.

26) 김미정. 「대학생들의 효 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11.

27) 류정려. 「중국대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2013.

28) 정정애·박영숙. 「한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효 의식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제 10권(2009)

29) 류한근. 「효 의식 조사를 위한 척도연구」. 『효학연구』. 제 13권(2011)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 의식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동기는 연구자와 같은 연구실에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을 보며 유교사상과 효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들은 효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지 살펴보고 싶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출신 유학생 중 연구에 대해 참여의사가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에 동의한 중국출신 대학원생은 총 7명으로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민족	한국거주기간	학위과정	한국어정도	형제
연구참여자 1	한족	4년	박사	고급	2명
연구참여자 2	한족	2년	석사	고급	외딸
연구참여자 3	한족	1년	석사	중급	외딸
연구참여자 4	조선족	2년	석사	중급	외딸
연구참여자 5	한족	4년	석사	고급	외아들
연구참여자 6	한족	5년	박사	고급	3명
연구참여자 7	조선족	16년	박사	고급	2명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중국출신 한족이 5명, 조선족이 2명이다. 또한 석사과정생이 4명이고 박사과정생이 3명이다. 이들의 한국어 정도는 고급이 대부분이며 중급이 2명 이었다. 그러나 인터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형제관계는 외 딸과 외아들이 많았으나 형제가 2-3명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가기 전에 질문지를 류한근³⁰⁾과 이종길³¹⁾의 질문지를 질적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연구참여자마다 인터뷰

30) 류한근. 「효 의식 조사를 위한 척도연구」. 『효학연구』. 제 13권(2011), 105-121.

뷰는 1-2회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윤리를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시간은 1인당 1시간 내외로 하였으며 인터뷰내용은 연구참여자의 허락을 받은 후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맥락과 부분적인 요소들을 비교하면서 이들의 효 의식을 공경, 친애, 봉양, 입신행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뷰내용을 연구참여자에게 메일로 전달하고 분석한 내용은 동료 질적연구자에게 검증을 받았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효 의식을 심층인터뷰하여 연구자가 분류한 효의 내용인 공경의 효, 친애의 효, 봉양의 효, 입신행도의 효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공경의 효(恭敬의 孝)

맹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예라고 하였다. 자식이 어버이를 섬길 때 공경하는 마음을 강조하였으며, 공경이란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받드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부모공경은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속 썩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신경 쓰이게 안하는 것이 최대의 효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2)

“한국에 와있다 보니 부모님 뜻을 받드는 것이 한국생활 잘하고 아프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논문 쓰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아파서 엄

31) 이종길. 「한국고등학생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10.

마가 보고 싶어도 아프단 말을 안 하고 참아요. 그땐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2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것이 최상의 효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자신이 건강하고 한국생활 잘하고 부모님 속 썩이지 않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효경에 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님의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자녀 된 도리로서 가장 큰 공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생활에서 힘들 것은 한국어가 잘 안 통할 때, 논문 쓸 때, 아플 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주위에 중국인 학생들이 많으니까 대화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해요. 그래도 부모님만은 못하죠.” (연구참여자 1)

유학생인 연구참여자들은 멀리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나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종길³²⁾은 자기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항상 공경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들이 타국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같은 유학생끼리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습득된 사회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제사풍습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의 효사상은 중국과 다른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전에 해야지 사후에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제사를 한국같이 성대하게 형식에 맞추어 지내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신 날 간단하게 음식 차리고 같이 식사하고 돌아가신 날 성묘만 간단하게 해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한국의 제사풍습은 격식과 형식을 중요시하고 음식도 많이 하지만 중국의 제사풍습은 간소하게 부모님을 추모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한국과 같은 형식의 제사는 지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생전 해

32) 이종길. 「한국고등학생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10

야지 사후에 제사 같은 것에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49년 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되면서 전통적인 효를 부정하면서 중국학생들의 효의식도 변화된 것 같았다.

2. 친애의 효(親愛의 孝)

애(愛)는 사랑을 뜻하며 애는 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효행을 실행할 때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어떤 효행은 무의미하다.³³⁾ 이 세상에는 여러가지 사랑이 있지만 부모자신간의 사랑만큼 고귀하고 진실 된 사랑은 없다. 이는 혈연을 떠나 친륜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정책상 하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모의 자식사랑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이다.

“저는 부모님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개인적인 일 다 상의해요. 부모님도 집안일에 대해 저에게 잘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외딸이라 부모님이 저에게 많이 얘기해요.”(연구참여자 3)

“부모님 너무 사랑하죠. 비록 몸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화상통화 잘하고 메일을 자주 주고받고 있어서 멀리 있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엄마와 의견충돌도 있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는 3은 부모님과 멀리 있어도 항상 가까이 있는 것처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연구참여자 4는 멀리 있어 부모님이 더욱 소중하고 많은 것을 이해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유학생들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이 가까이 있는 자녀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동자녀와 비 외동자녀의 차이에 대하여 외동자녀는 부모와 자주교류하고 부모의 식습관을 잘 알고 있으나 부모님에게 화를 많이 내는 편이라고 하였다. 많은 중국유학생들은 외동으로 자랐기

33) 류정려. 「중국대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2013), p 9

때문에 부모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함께하길 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엄마아빠가 중국에서 딸을 키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과 매일 통화를 하는데 부모님께 많이 미안해요.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 저 때문인 것 같아 속상하고 죄스러워요. 제가 부모님같이 제 딸에게는 못할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만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의 경우는 아이를 친정 부모에게 맡기고 유학 온 학생으로 부모님께 항상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자신은 부모님만큼 자식에게 헌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의 은혜를 자식들이 얼마나 알고 효를 다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듯 부모의 사랑은 한없이 넓고 크며 자식으로서 사랑으로 친애로 도리를 다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적 책임임을 알 수 있었다.

3. 봉양의 효(奉養의 孝)

전통적인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부모와 같이 살거나 돌보아주는 것을 효도라고 하였다. 증자가 말하기를 효도하는 자식의 노인 공경하는 법이란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요즘 시대에 중국출신 대학원생들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봉양의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부모님이 그동안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늙으면 제가 모셔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부모님과 제가 바톤터치하는 것과 같아요.”(연구참여자 5)

“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같이는 아니고 가까운 곳에 같이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픈 것도 아니고 아직 젊어서 일도 하시니까 같이 안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프거나 거동을 못하면 지금 하던 공부 휴학하고 중국 가서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부모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의 봉양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어 부모님이 아프거나 늙어 거동이 불편할 때는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는 그동안 자신들을 길러 주었으니까 부모님이 늙으시면 자신이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 4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직 젊고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가까이서 살고 싶어 하였으며 한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프시면 언제든지 휴학을 하고 부모님을 보살피러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아 부모님에 대한 봉양의 효는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류정려는 중국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양의식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부모가 아프실 때 보살피려 드리려하지만 한편으로 부모와 마주하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은 외딸들이 많아 친정부모를 시부모와 같이 모시고 살겠다고 말하였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아프시면 제가 모셔야할 것 같아요. 남편도 당연하다고 생각할거예요. 저희 부모님에게 저도 외딸이기 때문에 제가 안모시면 누가 모시겠어요? 또 중국은 한국같이 사돈끼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연구참여자 2)

“제가 결혼하면 여자 친구의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는 그 친구 하나밖에 없어서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연구참여자 5)

그러나 연구참여자2 자신의 부모님이 아프시면 시부모와 같이 모시고 살겠다고 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사돈관계와 다르게 양쪽 사돈이 같이 한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여자친구가 외딸이기 때문에 여자 친구의 부모도 자신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것은 한국사회에 변화되어야 하는 문화 중 하나인 것 같았다. 또한 한국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손주에 대한 인식과 할머니 할

아버지의 봉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한국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잘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보는 것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아버지 말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가 모셔야 해요.”(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은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를 잘 안 봐주려고 하나 중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손주들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손주도 자식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손주들도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도 봉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입신행도의 효(立身行道의 孝)

입신양명이란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말이다. 효경에서는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떨침으로서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끝³⁴⁾이라고 하였다. 입신이란 출사를 의미하며 과거에는 관직을 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누구집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드높여 부모님의 어깨가 으쓱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행도가 중요하다. 도를 행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으로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게 공직의 길을 가 깨끗한 관리가 되어 부모의 이름을 알린다는 뜻이다³⁵⁾. 유학을 온 대학원생들은 자신이 성공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했다.

“한국에서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부모님이 고생하신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요.”(연구참여자 1)

34) 『孝經』, 유덕선 역, 「開宗明義章」,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35) 이종길. 「한국고등학생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10).

“제가 입신행도를 한다면 학위를 받고 좋은 곳에 취직하여 부모님 걱정 안하게 하는 거예요. 또 직업을 가졌다 하여도 그것을 청렴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것일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6)

“제가 한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니깐 빨리 학위를 받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던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가장 바라실거예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께 가장 큰 효라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공부하여 빨리 학위를 인정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직업을 가지고 자리를 잡는 것이 자신에게도 잘 된 일이지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확고한 목표가 있어 한국으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곧 부모님의 기쁨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7은 자신이 어떤 곳에서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가장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이름을 빛내는 것은 자신의 이름도 빛낼 수 있는 것이고 이름을 빛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게 일처리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로서의 마지막 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효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유학생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공경의 효에서는 중국유학생 역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한국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친애의 효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다. 유학생들은 부모님과 대화와 소통을 위해 화상 전화나 메신저, 메일들을 통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님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애뜻하였으며 부모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 효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봉양의 효에서는 부모님이 아프시면 언제든지 달려가 자신이 모실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부모님이 아프지 않을 때는 굳이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노인시설로 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입신행도의 효에서는 빨리 학위를 받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위를 통하여 자신의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어 했다. 더불어 공명정대함으로 자신의 명예를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의 효 의식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어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하다. 그 이유는 많은 수의 중국 유학생보다는 소수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인 인터뷰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많은 지역의 중국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다양한 환경과 지역에 따라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의 효 의식을 이해하고 이들의 효 문화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다른 나라 유학생들은 어떤 효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기초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 투고일자 : 2015. 6. 2. / 심사일자 : 2015. 6. 22. / 게재확정일자 : 2015. 6. 29.

<참고문헌>

- 김미정. 「대학생들의 효 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11.
- 김재형. 「청소년의 효의식, 효행동의 요인구조탐색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2006.
- 김지훈·이민경.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동기와 경험연구」. 『동아연구』 제61권, (2006), pp. 73-101.
- 류정려. 「중국대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2013.
- 류한근. 「효 의식 조사를 위한 척도연구」. 『효학연구』. 제13권(2011), pp. 105-121.
- 박미숙·김영순·홍유나.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외국으로서 한국어교육』. 제40권(2014), pp. 110-141.
- 박철호. 『효학의 이론과 실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pp. 153-170.
- 백석원. 「고등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03.
- 송형섭. 「대학생의 효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집』. 제14권(1998), pp. 1-20.
- 오영훈·박미숙·장영신.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효 문화 경험에 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40권(2014), pp. 281-303.
- 이숙희·신효식·이선정. 「중학생의 효 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제17권 2호(2005), pp. 159-170.
- 이신동. 「강화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06.
- 이종길. 「한국고등학생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10.
- 유계숙·유행. 「중국 한 자녀가정의 효 의식과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지각」. 『가족과 문화』. 제26권 1호(2014), pp. 122-151.
- 정정애·박영숙. 「한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효 의식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제10권(2009), pp. 115-141.

- 채경선. 「초등학생의 효 의식과 효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효학연구』. 제13권(2011), pp. 123-150.
- 채경선. 「아동의 효 의식과 리더십과의 관계연구」. 『효학연구』. 제16권(2012), pp. 51-68.
- 채광병. 「태권도 수련 초등학생의 교육프로그램이 효 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경희대학교, 2008.
- 최경숙.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효 의식과 효 행동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제5권 2호(1998), pp. 128-148.
- 최근덕. 「효와 미래사회」. 『효학연구』. 제 4권(2007), pp. 85-92.
- 최한나. 「개념도 방법을 통한 여자대학생이 인식하는 효 의식」. 『효학연구』. 제12권(2010), pp. 35-53.
- 최한을. 「초등학생의 효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2002.
- 焦國成·趙艷霞. 「孝的歷史命運及其原始意蘊」. 『齊魯學刊』, 제 1권(2012), pp. 5-10.

A Study on Filial piety Consciousness of Chinese Students who attend Korea Graduate School

MiSuk Park & MiJeong Lee
(Inha University)

There has been increase in numbers of foreign students in Korean graduate school due to the globalization. Among them, Chinese students account for more than 50%. It has significant meaning to explore how their and filial piety are working in Korea in which filial piety culture and Confucianism are deeply roo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ilial piety consciousness of Chinese students who are attending graduate school in Korea.

To do this, 7 Chinese students who are attending graduate school in Korea are selected a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ive from March 2015 to May 2015.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has been analyzed being categorized by filial duty of honor, filial duty of affection, filial duty of support and filial duty of succ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regarding to filial duty of honor, Chinese graduate school students were trying to show respect and honor toward their parents and thinking that not causing anxiety to their parents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piety duty. Second, concerning filial duty of affection, even though they were living apart from their parents, their affection toward their parents do not change and they were keeping in contact with their parents via E-mail, messenger and display phone. However, they thought that their affection level is lower than that of their parents. Thirdly, in terms of filial duty of support, when their parents get older or sick, they said that they will support their

parents. They said that they do not understand why Koreans are sending their parents to the nursing homes these days. Finally, with regard to filial duty of success, they want to achieve degree as soon as possible to be a proud and helpful offspring of their parents.

Such results above gave opportunity to explore the filial piety consciousnes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graduate school and it is expected to give understanding of foreign students' filial piety consciousness as well as provide academic resources.

Key words: filial piety, chinese students, korea graduate school